

The Key II.

고통안에 숨겨진 영광의 열쇠를 발견하라.

1.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된다. 흔들린다는 것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변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믿음은 분명히 사도행전의 모습과 달랐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렸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인다. 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마찬가지로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변화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의미'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 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며,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것이다.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져온 '죄' 문제와, 이로부터 파생한 모든 문제의 해답과 열쇠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 찾는 것이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린다. 너무나 명확하다. 분명하다.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14:6)"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2.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사야 53장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셨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안고 죽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사야 53:4-5]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삶으로 완성하셨다. 예수님의 고통(찢림, 상함, 징계, 채찍)으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내가 알고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이사야 53장이 이에 대한 답이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5장에 분명히 나타나있다.

[요한계시록 5:12-13]

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영광의 왕으로 앉아 계신다.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을 찬송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라고 찬송한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영광의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의 예수가 아니다. 그 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힘과 부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내 신앙의 모든 패러다임이 실제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 때부터 상황과 환경의 문제에 지배 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3.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안에 숨겨진 영광의 승리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이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영광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약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고통과 고난안에 이미 영광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로마서 8:16-19]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인간을 가장 어렵게 하는 ‘죄의 고통의 문제, 육신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 한다. 그는 고통가운데 있었다.(사망의 몸을 비유하며 그 고통을 표현했다). 결국 바울은 이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8장에서 말한다.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한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16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임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는 결국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고통과 고난’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통과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통과 고난안에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17절).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18절)” 라는 엄청난 비밀을 선포한다.

결국 바울 스스로가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고통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있는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4. 고통의 문을 여는 소망의 열쇠

[마태복음 9:26-29]

26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하더니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고통 가운데 있는 눈이 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분명하다. 26절에 보니 그들은 소문을 들었다. 눈먼 사람들을 고치시기 전의 사건이 바로 죽은 관리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고통 가운데 눈먼 사람들이 죽은 관리의 딸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붙렸다.

어떤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겠는가?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따라 온 것이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사방을 더듬거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절박함이었다. 그렇지만 그 절박함에는 자신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

아마 이들은 넘어지며 무릎이 깨졌을지도 모른다. 앞을 못 보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 뿐이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우리는 소경들이 지녔던 절박함이 없다. 너무 나이스하다. 심지어 체면을 차린다. 덜 배고파서 체면을 따지는 것이다. 고난과 고통에 대한 깊은 계시가 있어야 영광이 보이는 것이다. 십자가 신앙이란, 고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죽어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영광을 본다.

5.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의 열쇠

[요한계시록 19: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의 고난안에 숨겨진 영광을 아는 것이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본성 안에는 그 영광을 가져올 아들을 기대하는 본성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난의 문제를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 구체적인 앎이 바로 열쇠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이 ‘열쇠’가 된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의 계시가 풀려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증언’이 있다. 예수의 증언이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된다. 그 소망이 예언의 영이며, 그 예언이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된 공간이 된다.

그 소망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증거이자 예수의 증언이다.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났던 곳에 언제나 복음 전파의 확산력이 생겼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모든 문제는 그 당시 복음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에게 소망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 되는 것이다. 그 소망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